

“남녘의 봄소식 알리는 매화꽃 보러 오세요”

내달 13~22일 ‘25회 광양매화축제’ 개최
지역특화 먹거리·체류형 관광 등 연계

남녘의 봄 소식을 알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 삼진강변 매화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관광협회센터에서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축제 일정과 행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꽃 있는 매화축제를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세부추진 계획도 미디어아트, 전통예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체류형 문화관광축제로 운영한다.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 속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특히 광양만의 지역 특화 먹거리와 관광 연계 정책을 통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높인다.

기후 변화 시대에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매화문화관에서는 광양출신 민화작가 호천 엄재권 화백의 특별전과 아이남, 방우송, 구남컬렉티브 등 국내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 8인의 작품 전시도 함께 열린다.

또 한국창의예술교 연주회, 육산 김요천웅 추모제, 매돌이 굿즈샵, 황금매화·매실 GFT이벤트 등 기획행사와 스텝프투어, 매화인생 사진관, 매화꽃 활터, 매실 하이볼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선보인다.

체류형 축제를 위해 둔치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펀 런(Fun Run)과 금천 계곡 야영장에서 진행되는 2박3일 간 사전 예약 캠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먹거리 축제를 위해 불고기 닭아광양 도시락, 김국 한상차림, 광양불고기김밥, 매실한우 광양버거, 숯불 토종닭꼬치 등 지역 특화 음식과 매돌이 캐릭터 숭사탕 등 디저트 메뉴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시는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 없는 축제장 운영 기조는 유지하면서 주차 공간을 전년 대비 250면을 확대하고 둔치주차장과 주 행사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증차하고 광양읍~중마동~축제장을 연결하는 일 6회 운영하는 도심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매화축제는 25년 축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화·관광·경제가 어우러진 대표 봄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매화를 매개로 광양의 관광자원과 도시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방문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 매화축제

곡성, 고품질 블루베리 장기 출하 체계 구축

2031년까지 출하량 525t·생산액 140억 목표

곡성군이 고품질 블루베리 안정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고품질 산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동시에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시설하우스 가온 재배부터 간이비거림, 노지재배를 거쳐 만생종 생산으로 이어지는 3월부터 9월까지 블루베리 장기 출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조기재배를 통해 3월에 출하되는 블루베리는 시장 선점 효과로 높은 가격 형성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7~9월 만생종 단지를 육성해 연중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춰 유통처의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곡성 블루베리

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작목으로 부상했다. 실제 역대 매출 농가가 늘어나며 신규 진입 농가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2023~2025년 만 49세 이하 청년 농업인 신청자가 5명이었지만 올해는 1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군은 농가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설하우스, 난방기 관리시스템 등 장기 출하에 필요한 핵심 시설을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공선출하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2031년까지 출하량 525t, 생산액 140억원 규모의 산지를 조성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은 3월 조기재배에



곡성에서 블루베리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들 모습.

강점을 지닌 기존 생산 기반에 더해 7~9월에 생산되는 만생종 블루베리 단지를 함께 육성해 출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고품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장기 출하 산지로의 정착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오성종 곡성군블루베리공선회장은 “군

에서는 농가 수요 맞춰 교육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곡성농협에서는 안정적 판로 개척으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곡성 블루베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 좋은 상품이 출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여수시의 지역 대표 특산물인 거문도 해풍숙이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다.

봄 향기 담은 거문도 해풍숙, 이달 중순 출하 베타카로틴·미네랄 풍부한 청정 특산물… 온라인 구매 가능

여수시의 지역 대표 특산물인 거문도 해풍숙이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거문도 해풍숙은 지리적표시 제85호로 등록된 청정지역 특산물로 해풍과 해수가 만들어낸 독특한 기후 조건에서 자라 향이 진하고 영양 성분이 풍부한 숙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한파 영향으로 전년보다 출하 시기가 보름가량 늦어져 생숙은 2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가공용 숙은 4월 상순부터 6월 하순까지 출하될 예정이다.

숙떡, 숙차 등 가공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연중 판매되고 있으며 생숙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들은 거문도해풍숙영농조합 누리집(http://www.gmdssuk.com)을 통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해풍숙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규제화된 포장제(종이박스) 제작, 적기 출하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드론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숙대 제거 작업기 지원 등 생산·유통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을 돕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출하 체계 구축에 기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거문도 해풍숙은 청정지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약숙으로 향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며 “앞으로도 거문도 해풍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수익성 향상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문도 해풍숙은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소비자에게 봄철 건강 식재료로써 자리매김하며 꾸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순천 참다래, 캐나다 먹거리시장 공략

11t 첫 수출 선적식 개최
북미시장 개척·수출 확대

순천 참다래가 처음으로 캐나다 먹거리 시장에 공략한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2026년 순천 참다래 캐나다 첫 수출 기념 상차식’을 개최했다.

상차식에는 순천시를 비롯해 전남도 국제협력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순천 참다래는 11t(6000만원 상당)이며, 일본 외 국가로의 첫 수출 사례이다.

순천 참다래는 매년 200t 이상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효자 품목으로, 순천 낙



순천시는 최근 순천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2026년 순천 참다래 캐나다 첫 수출 기념 상차식’을 개최했다.

안·별랑·해룡·서면에서 생산된다. 출하된 참다래는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서 공동 선별·출하 과정을 거쳐 고품질 농산물로 해외 시장에 공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상차식은 단순한 수출 개시 행사가 아니라, 북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해외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 15일 녹동항 설맞이 드론·불꽃쇼

1500대 규모 드론 특별공연

고흥군은 오는 15일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귀성객과 군민, 관광객을 위한 드론쇼 특별공연과 해상 불꽃쇼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상설 공연보다 2배 많은 1500대 규모의 드론을 활용해 떡국, 숯불이, 까치, 복주머니 등 설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쇼와 연계해 녹동항을 찾은 방문객에게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

하기 위해 오후 7시와 8시 20분, 두 차례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드론쇼 직후에는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군은 설 명절 특별공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40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하고, 사전에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구례, 산림일자리사업 추진
일자리 발대·안전교육 실시

구례군은 최근 2026년 산림일자리 발대식 및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발대식에는 참여 근로자, 임업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 가꾸기의 내실 있는 운영과 품질 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산림사업장 내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구례군 산림일자리 사업은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 패트를, 도로경관정비, 산림재난대응, 도시녹지관리, 숲길안내 등 7개 분야 총 75명으로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특히 수목의 성장을 방해하는 산림 내 덩굴류 제거와 주요 도로변 정비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군민이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고, 생활권 주변 각종 산림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숲의 공익적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며 “숲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체계를 잘 구축하여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